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8월 26일 오전 5:30 194 읽음

<단상>

정리의 흔적...(4)



친구가 없다.
실패한 인생이다.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고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인생인데 실패다.



중학생일 때 알게 된 친구 홍군.
타고난 그림 솜씨와 기발한 상상력을
친구인 나를 속여먹는 데 투자하였다.



그를 소재로 중편 소설 <뫼>을 쓰게 되었지만
더 이상 친구는 아니다.
살아있지만 소설 속에서처럼 그는 죽은 셈이다.
지금쯤 어쩌면 정말로 죽었는지 모른다.



대학 시절의 절친들....

OutofSight, OutofMind 가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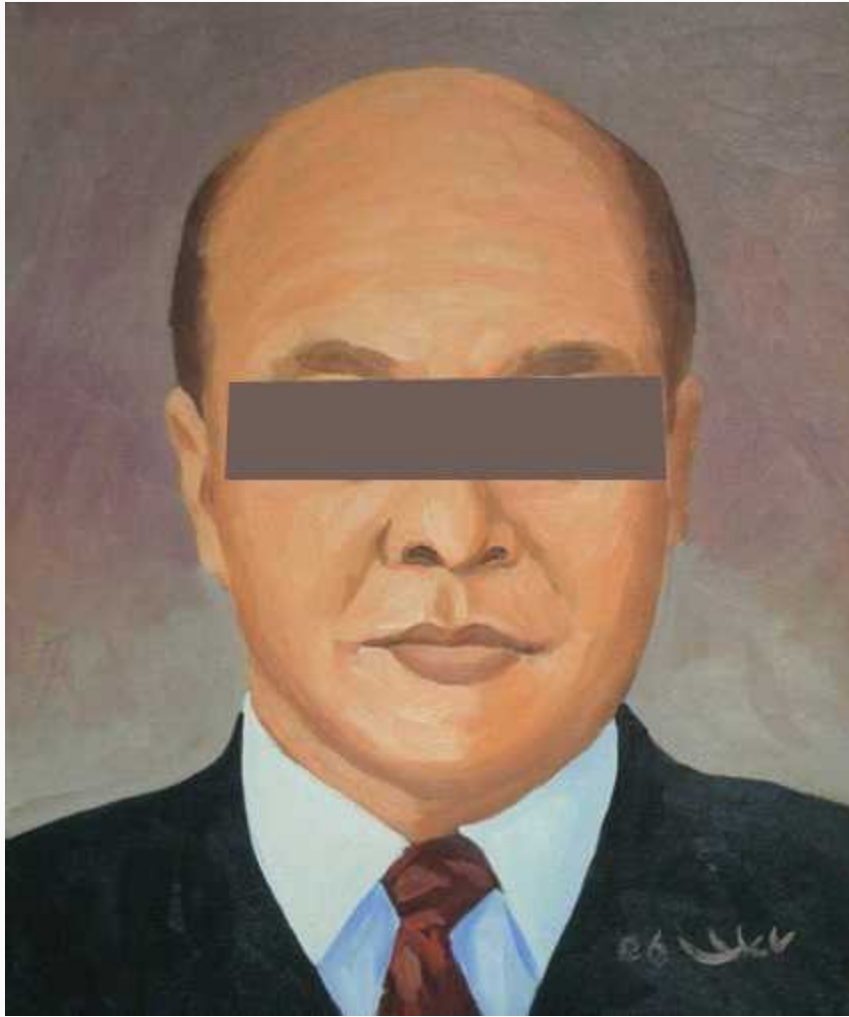
사이먼 & 가펑클을 흥얼거릴 무렵엔

독재정권 타도를 함께 외쳤지만 지금은 아니다.

<문재인 그 새끼>를 입에 달고 사는, 철저한 ㄴ시의 시민들이다.

만정이 떨어진다.

자녀들 청첩장 정도는 보내오더니 지금은 소식도 없다.



오히려 대학친구의 초등 동기생이었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었다.
수산과학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모로 나완 죽이 맞았다.
박사 논문도 여러 편 썼는데도 안타깝게 치매가 일찍 찾아와
지금은 연락이 두절이다.
보수정권이 아닌 것으로 친구 사이를 갈라 놓은 유일한 경우였다.



일방적으로 절친이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긴 하다.
마누라의 여고 동기생 남편인데 운이 좋았는지 의대 시절 선택한
이비인후과가 환자가 들끓어 영업적으로 성공한 의사가 되었다.
그 역시 ㄷ시의 시민답게 나의 만정을 일찍부터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수 더 떠 희한한 가치관으로 나를 기함시킨다.



<OO 아, 잘 함 보래이. 개량한복 입은 사람은 전부 다 빼딱하데이>

초등 동기생이자 맥주 친구인 스교수.
조영남을 능가하는 가창력과 호방한 성격으로 '술친구'론 딱이다.
2002년 12월 19일 저녁.
고향 친구 황군과 둘이서 단골 맥줏집 '베네치아'에서
개표 방송을 보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서 마셨는지 이미 반 술이 넘은 스교수가 나타나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이 무라. 너거는 좇겠다. 나는 인자 들어 가 잘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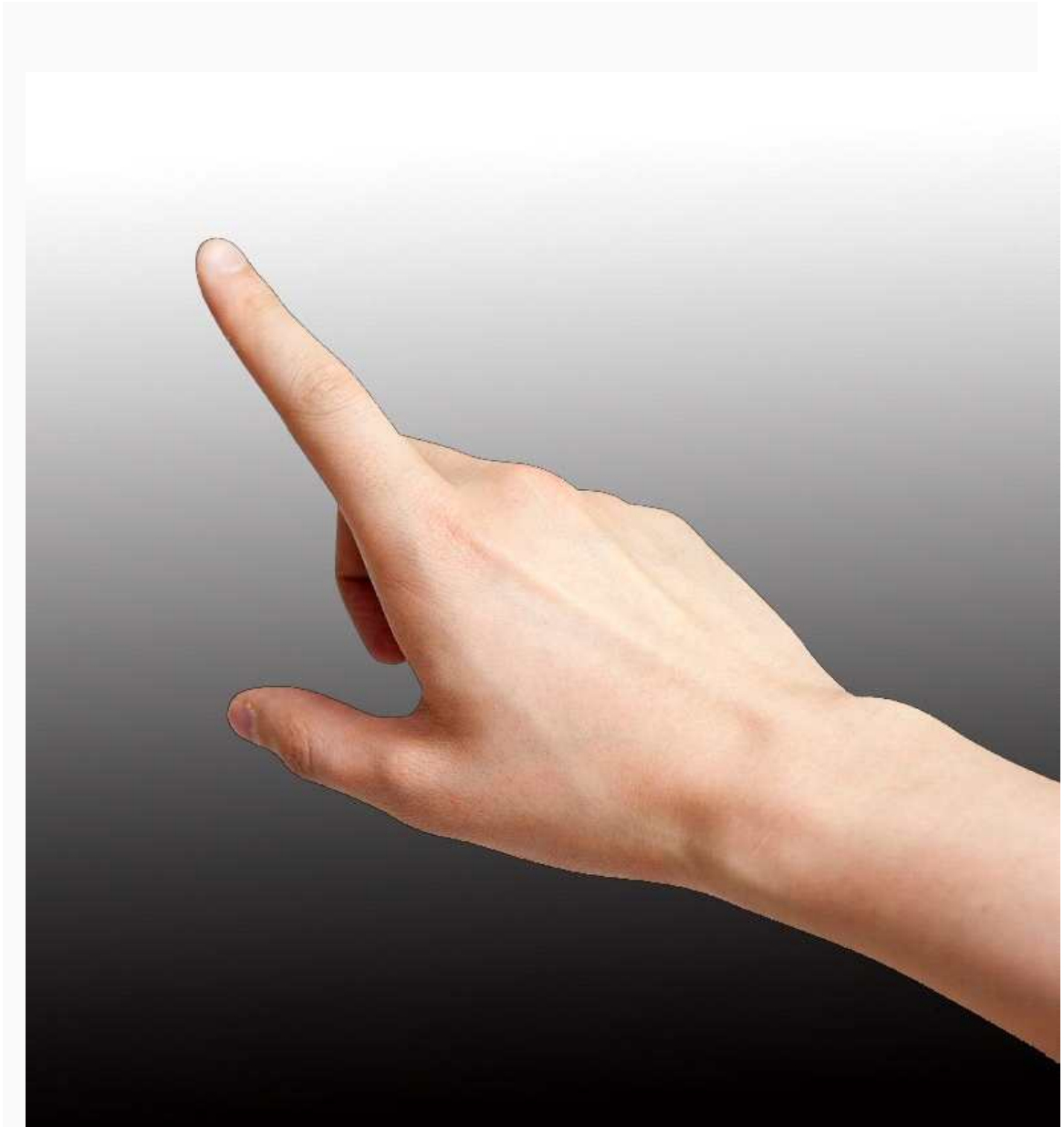
며 돌아섰는데 그의 뒤통수가 매우 허전해 보였다.
공학도인 사교수가 경부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지지하길래
이 친구와 나눌 것은 술잔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하였다.



노무현은 수많은 고향 친구들을 나에게서 떼어 놓았다.
가진 것이라곤 불알밖에 없는 한 녀석이 술자리에서 떠들어댄다.

<노무현 찍은 놈들 전부 손가락을 잘라야 돼>

나는 그 녀석 눈 앞에다 내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아나 찢라라. 이기 노무현 찍은 그 손가락이다>

이후로 초중등 동기생들은 나를 똥 친 작대기 보듯 한다.

전교조 또한 직장 동료들을 나에게서 떼어 놓았다.
그들은 빨갱이와 조합원을 구별하지 못했다.



나는 사정상 조합원이 아니었지만 내가 서 있을 중간지대는 없었다.
퇴직 이후 점심 식사 정도는 함께하는 동료는 있지만 결코 그들은 중간지대에서 만난 친구들은 아니었다.
노사모나 유시민 팬카페를 통해 만난 이들은 많다.
색소폰이나 테니스 탁구 등산 등의 매개물을 통해 만난 이들 또한 많다.
최근엔 인터넷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이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인간성'에 이끌려서 가까운 사이가 된 친구는 사실상 없다.



오로지 '씻고 벗고' 유일한 친구 황군.
최종학력은 고졸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리하다.
아니, 정의롭다.
그는 지금 치매 초기인 부인을 간호하기 위해 고향에 머물고
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고향이건만
OutofSight, OutofMind 가 적용될까 봐 조금은 염려스럽다. ▣
(일부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